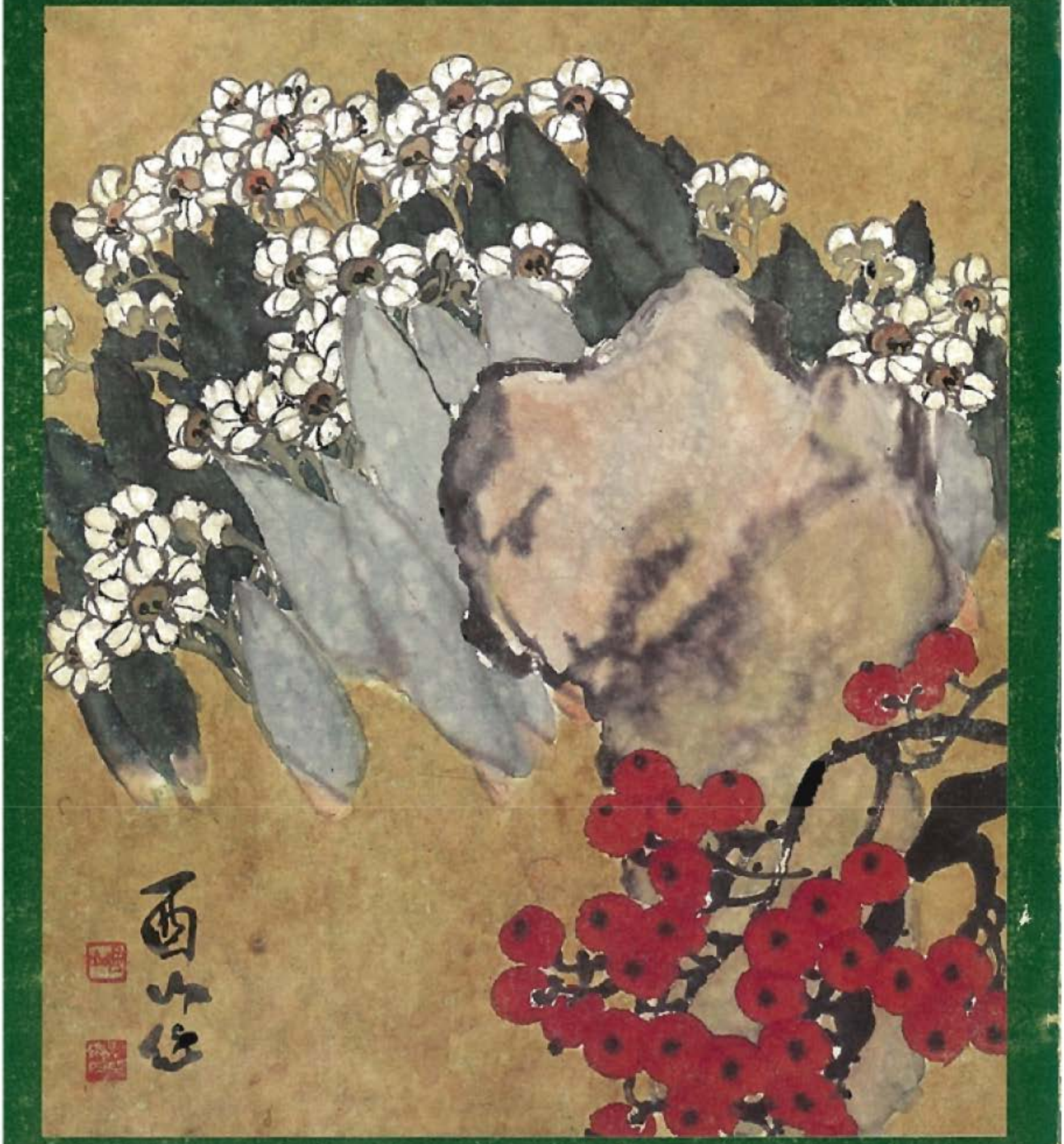
1979年 冬之号 第7卷第4号通卷26号 1979年 12月 1日 発行 文公部登録番号 마-295号 (1973年 8月 29日 登録)

KoRICA

畫廊

1979 겨울
NO. 26



KoRICA

張旭鎭의 新境地

——張旭鎭展後記——

李 慶 成

1、우리나라 화단에서 「장욱진」하면 그의 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장 독보적이고 소박한 미의 세계에 도달한 화가라고 이름났다。 그러나 그의 나이 어느덧 60을 훨씬 넘어 인생의 황혼에 이르니、무엇인지 이제까지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발간을 보게된 「張旭鎭 畵集」은 바로 그와같은 마음의 표시이고 동시에 그것은 장욱진 작품세계의 결산이기도 하다。

장욱진 화집 발간에 즈음하여 그속에 수록된 모든 작품을 빌려서 한자리에 모아놓고 있다。 비록 소품이지만 현대화랑 2층 전시장에 전시된 것이 장욱진 작품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거의 4·50년에 걸치는 이들 작품은 몇가지 양식적인 변모는 있어도 한결같이 그의 발상의 순수함과、표현의 대담성 때문에 상식적인 세계를 벗어나고 참신한 아름다움에 도달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60을 훨씬 넘은 노화가에게 동심의 작가라고 하면 그 자체가 작가에 대한 욕이 되는 것인가。

KoRICA

그러나 이 경우 동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론은 달라질 것이다。

어린아이가 동심적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워서 하등의 무리가 없다。 오히려 반대로 어린아이가 동심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문제이다。

그러나 어른을 동심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어린이의 것과 다른 의미에서 사용된다。 즉 그는 인생을 살면서도 순진무구한 마음의 순수성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된다。 어른이 쓴 동화라든가 동시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고 또한 어른이 그린 소박한 그림이 바로 그것이다。

문학의 경우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을 아동문학이라고 하는데 미술의 경우는 아동미술이라는 영역이 별로 뚜렷하지 않다。 있다면 아동들 자체의 그림을 아동화라고 부를 뿐이다。

그런데 장욱진이 그리는 작품세계는 어른이 그린 아동의 세계이기에 그만큼 발상에서부터 표현에 이르기까지 쉽지가 않다。

이러한 아동의 세계는 그것이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는 천성의 탓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세계이다。

이와같은 예술의 세계를 서양에서는 프리미티브 아트라고 해서 그의 소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 글은 장욱진 예술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고 그의 화집발간을 계기로 해서 현대화랑 아랫층에 전시한 수묵화와 판화에 대해 이야기 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2、 이러한 장욱진의 수묵화와 판화는 장욱진에 있어서 그 재료와 사용도구의 새로움에서 오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그의 작품의 영역은 변함이 없다。 즉 생활주변의 잡사라든가 가족의 묘사같은 작품의 주제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이번 수묵화는 종이 위에다 모필로 그렸기 때문에 그의 조형적인 효과가 부드럽기 짝이 없다。 서양붓이나 스무스 펜같이 딱딱한 필촉을 가진 도구

KoRICA

는 거기에 정착되는 형상이 딱딱하게 나타나는데 글씨를 쓰는 모필로 그린 그림은 선에 속도가 있고 유연성이 가득하다。

주변의 이야기에 의한다면 화가 장욱진은 이 새로운 재료의 발견과 사용으로 말미암아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붓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그는 그린 것이 아니라 붓을 휘둘러서 종이 위에다 자욱을 남기는 것이다。

더욱 수묵화의 경우는 색채가 배제되는 바람에 발상의 순도는 더욱 더 맑다。 이것은 확실히 화가 장욱진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지이며 앞으로 그가 개척할 조형세계인 것 같다。

판화는 그의 방법이 약간 딱딱해서 수묵과 같은 자유분망한 맛은 없어도 그곳에서도 최대한의 자유로운 행위가 보장되고 있다。

결국 천성이 화가인 장욱진은 무슨 재료에다 무슨 방법으로 표현했든간에 자기의 자유로운 정신을 마음껏 나타내고 있다。

그의 작품은 곧 그의 자유정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의 제작태도는 무목적적이다。

우선 무목적성은、 진정한 의미의 유희정신이 바로 목적없는 행동이라는 것과 상통한다。 그 무엇을 위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유희충동이나 창조 충동에 따라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순진무구하다。

이 순진성이야말로 그의 작품의 핵심이며 그가 어른이면서도 영원히 때묻은 인생에 지지않는 승리자가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장욱진의 신경지인 수묵화의 세계는 익어가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도달한 또 하나의 자유세계일 것이다。

張旭鎭畵集

기획 편집 · 現代畵廊

100부限定 · 값35000원